무주군은 천마와 사과, 비가림 토마토, 고랭지여름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를 전략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로니아 수확 장면

무주 농업경쟁력 키운다

군, 올해 농업분야에 804억원 투입… 영세농가 자립기반 구축 심혈도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올해 농업분야에만 80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19.6%가 증가한 규모로 무주군은 핵심 리더와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및 재배기술과 작물환경을 특화해 무주만의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벼 묘판과 영농경영비,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가축진료비를 지원하고 영세농가의 능력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영세농가 자립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군은 지역기후 특성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천마와 사과, 비가림 토마토, 고랭지여름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를 전략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천마의 대중화를 위해 우량자마 공급시스템 구축과 가공업체 육성, 기능성 입증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고랭지 기후와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사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배면적을(현행 0.8ha) 1ha 이상으로 확대해 규모화 시키는 한편, 15년 이상 노후된 과원은 갱신해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친환경인증 면적과 GAP인증 확대, 객토, 친환경자재, 유기질 비료, 광역 친환경 단지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정착 지원, 농업인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과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 생활 및 환경, 문화 활동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보를 위해 칡소 육성 특화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칡소 수정란을 이식해 125두를 이미 확보한 무주군은 올해도 130두에 수정란을 이식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초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아지들이 올해 말이면 도축연령에 도달해 칡소 고기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인식해 올해도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우리가 실현해 나갈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가 농민들에게 기를 불어넣고 농업 · 농촌에는 활력을 충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주민 간흡충 검사 '호응'

진안읍 1000명 대상 검사 중

진안군은 진안읍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간흡충)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내 기생충 검사는 용담댐과 하천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군은 그 동안은 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면 지역의 감염률이 1%대로 낮아짐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 진안읍 주민 중 기생충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간흡충은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간 및 담관에 기생하여 간암, 담관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1급 발암성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간흡충은 인체에서 수명이 20~30년으로 일반 구충제로는 구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검사를 통한 투약만이 구제할 수 있다.

진안군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87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검사자 중 양성자는 242명으로 3.3% 양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전년 대비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2017년도 1%)를 보이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고, 올바른 손 씻기와 정기적인 대변 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보건소 감염병 관리팀(063-430-8544)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반딧불농업대학 10기 수강생 모집

3월 8일까지 선착순 마감

무주군이 반딧불농업대학 10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사과과 50명, 모바일마케팅과 40명, 복숭아과 50명 등 총 140명으로, 희망자는 3월 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이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 읍·면상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 마감하며 최근 3년간 농업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수강생을 우선 선발 할 계획이다. 단 농업대학 수강신청 후 졸업하지 못한 수강생은 제외된다.

반딧불 농업대학 일정은 3월 1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사과과는 매주 화요일 14:00 ~ 18:00까지 총 23회, 모바일마케팅과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25회, 복숭아과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하현진 인력육성 담당은 "농업대학은 농업인들을 위한 평생학습과정"이라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농민도 부자되는 경제공동체 무주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광주~대구 달빛내륙 철도건설, 장수도 함께

군, 제2차 달빛내륙철도건설 실무자협의회 참석

장수군은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경유지 9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광주에서 대구까지 191km를 고속철도화로 추진예정이며 총사업비 4조 8,987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개통될 경우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내 주행이 가능하다.

경유지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인적·물적 이동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경제권 구축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지난 2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리는 제2차 달빛내륙철도건설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조기건설방안 및 실무자 협의회 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달빛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장계 농공단지 기업체와 간담회

장수군은 21일 안동환 부군수를 비롯한 장수군 장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장계농공단지 협의회장 김상현) 및 임원진 등 1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운영에 따른 규제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장수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업대표들은 그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불편사항에 대하여 가감없이 건의하였으며, 군에서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후견인제도,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기업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동환 부군수는 "기업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 많은 정보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였다"며"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축산업에 64억원 지원

진안군은 21일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및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4개 사업에 64억여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다양한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구축사업 5개 분야 11억, △진안고원 브랜드 육성사업 10개 분야 6억, △곤충·흑염소 등 고부가가치 축산업 지원사업 4개 분야 3억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폭염, 화재, 재해 등 축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화재 예방사업 및 사육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한다.

또한 토산어종 보호 및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3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며 용담호 일원과 관내 공용수면에 동자개, 다슬기 등 5개 어종 45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진안읍 내오천 일대에 지난해에 이어 신규 어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하수도 시설 안전진단

진안군은 21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하수도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대형공사 사업장,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 하수관로 및 맨홀 등이다.

군은 대형공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하수관로, 펌프장, 맨홀 등에 대해서는 오접, 파손, 지반침하 여부 등 진단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00톤/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운영현황 및 가동상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를 점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원예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장수군은 원예사업분야 농업정책을 개선하고 개별농가의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21일부터 3일간 13개 원예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개별농가의 애로사항 및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원예사업 추진에 적합한 농가인지 파악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APC, 농협, 농업법인에 출하한 실적 및 출하약정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